

---

# 승승국어(昇昇國語)

## 강의 안내

-한국고시학원-

---

# 승승국어 기본서

## 01 현대 국어의 문법

### 제2장 문법의 체계

#### 제1절 말소리

#### 1. 음운(音韻)과 음절(音節)

##### (1) 음운(音韻, phoneme)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가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이다. 음운은 의미를 구별하는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2) 음운의 종류

###### ① 분절 음운(分節音韻) - 음소(音素)

자음이나 모음과 같이 분절되는 음운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자음 19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등 총 40개이다.

예) \* ‘달, 말, 발, 살, 알, 칼, 탈’ : 열거된 단어들의 뜻을 구별하는 변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첫소리 ‘ㄷ, ㅁ, ㅂ, ㅅ, ㅇ, ㅋ, ㅌ’이고 이들은 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 ‘달, 돌, 둘, 들’ : 열거된 단어들의 뜻을 구별하는 변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가운뎃소리 ‘ㄱ, ㄴ, ㄷ, ㄹ’이고 이들은 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 ‘달, 담, 답, 당, 닷’ : 열거된 단어들의 뜻을 구별하는 변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끝소리 ‘ㄹ, ㅁ, ㅂ, ㅇ, ㅊ’이고 이들은 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 ② 비분절 음운(非分節音韻) - 운소(韻素)

소리의 길이[音長], 높낮이[高低], 세기[強弱] 등이 말의 뜻을 분화하는 기능을 가졌을 때 이들을 비분절 음운 또는 운소라 한다.

예) 눈[眼] : 눈:[雪] / 밤[夜] : 밤:(粟) / 말(馬) : 말:[言語] / 벌(罰) : 벌:[蜂]

집에 가.(→) : 평서문, 명령문 / 집에 가.(↗) : 명령문

##### (3) 변이음(變異音) - 이음(異音)

음운은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는데 이를 ‘변이음’이라 한다. 가령 국어에서 ‘바지’의 ‘ㅂ’은 목청울림이 없는 소리이고, ‘아버지’의 ‘ㅂ’은 목청울림이 있는 소리이며, ‘삼’의 ‘ㅂ’은 막힌 공기가 터지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 ‘ㅂ’은 각각 형태소의 첫소리, 모음 사이, 형태소의 끝소리에서 서로 다른 음성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비슷한 소리이며, 뜻을 구별해 주는 일은 하지 못한다. 이들은 음운 ‘ㅂ’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달리 실현된 음성들로서 이를 가리켜 변이음이라 한다.

# 승승국어 기본서

## 2. 문장 성분(文章成分)

문장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문법적 구실을 하는 요소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은 서술어인데 다른 문장성분들과는 달리, 서술어는 잘 생략되지 않으며, 활용어미가 다양하게 발달해 있어서 문장의 문법 기능들은 대개 이들에 의해 실현된다. 그래서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가장 기본적이며, 다른 성분들은 서술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주성분	주어	그 문장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서술어	주어를 서술하는 문장 성분
	목적어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보어	'되다'와 '아니다'의 앞에는 '무엇이'와 같이 보충해 주는 문장 성분
부속 성분	관형어	체언으로 실현되는 주어, 목적어 앞에서 이들을 꾸미는 문장 성분
	부사어	주로 서술어를 꾸미는 문장 성분
독립성분	독립어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된 문장 성분

### (1) 주어(主語)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말의 주어는 원칙적으로 체언에 주격조사 '이/가'가 붙어서 성립된다. 주격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

① 주격 조사 : -이/가<sup>1)</sup>, -께서(높임의 명사), -에서(단체의 명사), -서(수량사)<sup>2)</sup>

#### ② 주어가 이루어지는 방법

㉠ 체언+주격 조사 : 가장 일반적인 방법

예) 철수가 집에 간다.

㉡ 하나의 구(句)에 주격 조사가 붙은 형태

예) 그 소년이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 절(節)

예) 그림 그리기가 나의 취미다.

㉣ 주격 조사 생략

예) 너 어디 있니?

㉤ 체언+보조사

예) 아버지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셔.

㉥ 체언+보조사+주격 조사

예) 아버지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셔.

㉦ 주어+보조사 '만'

예) 아버지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셔.

우리 학교에서만 자율 학습을 한다.

둘이서만 갈 수 있다.

㉧ 주어+보조사 '만'+주격 조사

예) 아버지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셔.

우리 학교에서만이 자율 학습을 한다.

1) 주격조사 자리에 사용되는 '은/는'은 보조사이다.

2) 그들 둘이서 갔다.

# 승승국어 기본서

## 04 옛말의 문법

### 제1장 옛말의 문법

#### 1 고대국어

##### 1. 고대 국어의 의사 소통

(1) 삼국 사이

통역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 나라는 지금처럼 방언의 차이만 존재 했을 뿐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계층 간

음성 언어(말)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문자 언어(글)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 2. 향찰

신라 시대에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이용한 문자로 실질적인 부분은 한자의 뜻(훈)을 빌려 표기하고, 문법적인 요소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방식으로 국어를 완벽하게 표기하기에는 부족하였으나 한자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국어 문장을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하였던 방법이다.

착할	될	귀인	님	님	숨은		
善	化	公	主	①主	隱	선화공주님은	
선	화	공	주	주	은		
남	그윽 할	다만	얼	좋을	둘	옛	
②他	③密	只	④嫁	良	⑤置	古	
타	밀	지	가	량	치	고	
마	아이	방	새				
⑥薯	童	房	乙			맛등서방을	
서	동	방	을				
밤	어조 사	토끼	새	안을	보낼	갈	다
⑦夜	矣	卯	乙	⑧抱	遣	⑨去	⑩如
야	의	묘	을	포	견	거	여

①~⑩ 뜻을 빌려온 훈차, 나머지는 음을 빌려온 음차이다.





# 승승국어 문학 문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1-5)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머리를 내어라  
 若不現也 내어 놓지 않으면,  
 燔灼而喫也 구워서 먹으리.  
 - 작가 미상, <구지가>

1. 이 노래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주술적 집단 무요(巫謠)
- ② 최초의 정형시가
- ③ 원시 종교 의식과 관련 있음
- ④ 원시 토테미즘 사상의 표현

2.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간절한 기원
- ② 요구와 위협의 구조
- ③ 상징적 의미의 주술성
- ④ 비유에 의한 서정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10-14)

前腔 ㉠들하 ㉡노피골 도드샤  
 어기야 ㉢머리골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 저재 ㉤너러신고요  
 어기야 큰 티를 ㉥드티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過篇 어느이다 ㉦노코시라.  
 金善調 어기야 내 가는 티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 작가 미상, <정읍사>

<현대어 풀이>

달이여 높이 좀 돌으시어 / 아! 멀리 좀 비  
 치옵소서 / 어기야 어강도리 / 아으 다롱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 아! 진 곳을 디딜까  
 두려워라 /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 곳에선 놓고 오십시오 / 아! 내 님 가  
 는 그 길 저물까 두려워라 / 어기야 어강도리  
 / 아으 다롱디리

10. 이 노래에 대한 설명 중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 ①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노래이다.
- ②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의 원형(原形)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주제는 남녀상열지사이다.
- ④ 임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한국 여인상이 나타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89-93)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협 위에 치다라  
 안자.

것년산 바라보니 白松鵬(백송골)이 떠 잇거  
 늘 ㉢가슴이 금죽하여 풀덕 뛰어 내닷다가 두  
 협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에혈질  
 번흐·괘라.

- 작가 미상

(나)  
 발가버슨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  
 으로 왕래하며,

발가승아 발가승아 저리 가면 죽나니라. 이  
 리 오면 사느·니라. 부르나니 발가승이로다.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 승승국어 문학 문풀

- 이정신

(다)

宅(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황 후 그 무엇이랴 왜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 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 천), 前行(전행) 後行(후행), 小(소)아리 八足(팔 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장) 아스스하 는 동난지이 사오.

장사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㉔게것이라 하 렴은.

- 작가 미상

8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부정적 대상을 회화화함으로써 풍 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개탄이 나타나고 있다.
- ③ (가)와 (다)에서 보이는 대상에 대한 태도는 서 민들의 비판 의식이 성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
- ④ (가)~(다)에서 ‘두터비’, ‘발가숭이’, ‘장사’는 모 두 풍자의 대상이자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다.

90. 밑줄 친 ㉓~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 : 두꺼비가 올라가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 ‘두힘’은 수탈한 재물로 볼 수 있다.
- ② ㉔ :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는 것으로 보아 백송골은 두꺼비보다 힘이 더 센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㉓ : 놀라서 두엄 아래 자빠진 상황이지만,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는 허장성세(虛張聲勢) 의 말로 볼 수 있다.
- ④ ㉔ : 앞서 ‘거북이 웨지 말고’라고 한 것으로 보아, 게것 장수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는 말로 볼 수 있다.

91. (가)시의 밑줄 친 ㉑과 같은 대상이 드러나 지 않은 시는 무엇인가?

- ① "느릅나무 왜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 어찌하 여 그 곳에 깃들지 않니?" / 제비 다시 지저귀 며 / 사람에게 말하는 듯 /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 왜나무 구멍은 뺨이 와서 뒤진 다오."
- ② 일신이 사자 하니 물 것 계워 못 견딜쇠 / 핏 겨 같은 가랑니 보리알 같은 수통니 주린 니 갓 간 니 잔벼룩 굵은 벼룩 강벼룩 왜벼룩 기 는 놈 뛰는 놈에 비파같은 빈대 새끼
- ③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 인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뺨어가네 / 누전 세금 독 축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 삼월 중순 세곡선 (稅穀船)이 서울로 떠난다고.
- ④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 유자 아니 라도 품음직도 하다많은 / 품어 가 반길 이 없 을 새 글로 설워 하노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9-41)

유리에 ㉓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㉔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㉑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㉒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㉑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정지용, <유리창>



# 승승국어 단원문풀 비문학 독해

## 4. 연습문제 - 화제 찾기

문1. 다음 과정에 따라 화제를 찾으시오.

내 주변에는 나처럼 생각하고 나와 비슷하게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들도 나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가령, 나는 손가락을 베이면 아프다는 것을 다른 무엇으로부터도 추리하지 않고 직접 느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아야!”라는 말과 움츠리는 행동을 통해 그가 아픔을 느꼈으리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때 그가 느낀 아픔은 내가 느낀 아픔과 같은 것일까?

① 이 글의 제재는 무엇인가?

② 이 글의 제재의 속성은 무엇인가?

③ 이 글의 화제는 무엇인가?

문2. 다음 과정에 따라 화제를 찾으시오.

지도는 지표(地表) 공간에 관한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활용되어 왔다. 아마도 먼 옛날에는 흙이나 모래 또는 돌 위에 간단하게 공간 정보를 나타내어 이용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3천 년 전의 선사인(先史人)이 남긴 암각화에 공간 정보가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고구려 벽화에서는 요동성시(遼東城市) 그림이 발견되었다.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에 군사용 혹은 행정용지도가 제작되었다는 사실

도 다양한 문헌 자료에 의하여 밝혀졌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이후 제작 기술이 발달하고 그 쓰임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도는 많은 변천을 거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① 이 글의 제재는 무엇인가?

② 이 글의 제재의 속성은 무엇인가?

③ 이 글의 화제는 무엇인가?

문1. 다음 글을 읽고 화제, 화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 핵심어(구)를 간단히 쓰시오.

좋은 그림책은 완성되어 있는 글에 그림을 그려 넣은 책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책이다. 존재하는 물감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색이 만들어지고, 선과 선, 색과 색, 혹은 선과 색이 만나면 화폭에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영국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그림을 그리는 동안 문득 그림 그 자체와는 상관없이 바깥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저러한 형태들과 방향들이 어찌어찌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책을 본다는 것은 글로 쓰인 개념이나 대상을 넘어 미지의 영역과 서로 맞닿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① 이 글의 화제는 무엇인가?

② 화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

# 승승국어 단원문풀 비문학 독해

## ③ 핵심어(구) 찾기

### 1. 대상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는 글

(가) 영화의 역사는 신기한 눈요깃거리라는 출발점을 지나 예술적 가능성을 실험하며 고유의 표현 수단을 발굴해 온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미학적 차원의 논쟁과 실천이 거듭되었다. 그중 리얼리즘 미학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프랑스 영화 비평가 바쟁이 있다.

(나) 바쟁은 ‘미라 콤플렉스’와 관련하여 조형 예술의 역사를 설명한다. 고대 이집트인이 만든 미라에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깃들어 있거니와, 그러한 ‘복제의 욕망’은 회화를 비롯한 조형 예술에도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 왔다고 한다. 그 욕망은 르네상스 시대 이전까지 작가의 자기표현 의지와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원근법이 등장하여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성큼 다가가면서 회화의 관심은 복제의 욕망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 상황은 사진이 발명되면서 다시 한 번 크게 바뀌었다.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한 채 대상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사진이 발휘하는 모사의 신뢰도는 회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사진으로 인해 조형 예술은 비로소 복제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다) 영화의 등장은 대상에 재현에 또 다른 획을 그었다. 바쟁은 영화를,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함으로써 대상의 ㉠살아 숨 쉬는 재현을 가능케 한 진일보한 예술로 본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현이 가능해진 결과, ㉡더욱 닮은 지문(指紋) 같은 현실을 제공하게 되었다. 바쟁에 의하면 영화와 현실은 본질적으로 친화력을 지닌다. 영화는 현실을 시간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연장이며, 현실의 숨은 의미를 드러내고 현실에 밀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정수이다. 영화의 이러한 리얼리즘적 본질은 그 자체로 심리적, 기술적, 미학적으로 완전하다

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라)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가 현실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침해하여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현실의 참모습을 변조하는 과도한 편집 기법보다는 단일한 슷을 길게 촬영하는 롱 테이크 기법을 지지한다. 그것이 사건의 공간적 단일성을 존중하고 ㉤현실적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전경에서 배경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깊이를 제공하는 촬영을 지지한다. 화면 속에 여러 층을 형성하여 모든 요소를 균등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관객의 시선에도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 영화는 현실을 겸손한 자세로 따라가면서 해석의 개방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바쟁이 내건 영화관의 핵심에 놓여 있다. 그 관점은 수많은 형식적 기교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많은 지지를 얻으며 영화적 실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 문1.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쓰시오.

(가) \_\_\_\_\_

\_\_\_\_\_

(나) \_\_\_\_\_

\_\_\_\_\_

(다) \_\_\_\_\_

\_\_\_\_\_

(라) \_\_\_\_\_

\_\_\_\_\_

(마) \_\_\_\_\_

# 승승국어 기출 문풀 1+2

## 1.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2015년 국가직)

- ① 하나에 백 원씩 쳐주마.
- ②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치지네.
- ③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치대고 있지.
- ④ 오는 길에 치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 1-1.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그는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멀찌가니 물러앉았다.
- ② 눈짐작으로 고기 한 근 정도를 베어 냈다.
- ③ 아내는 전화를 받고 개숫물에 붙은 손을 말리지도 못한 채 달려 나갔다.
- ④ 가느다란 벌러지 소리들이 창밖에 가득 차 흐른다.

## 1-2.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자유에는 그만큼의 댓가가 있는 법이다.
- ② 단정하게 머릿기름을 바를 신사가 서 있었다.
- ③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 ④ 어머니께서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 하셨다.

## 6.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14년 지방직)

- ① 남겨진 적도 물리쳤겠네.
- ② 너를 위해서 땀을 흘렸어.
- ③ 흠쳐 갔을 수도 있겠군요.
- ④ 단팥죽이라도 가져와야지.

## 6-1.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나는 잠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 ② 마당에 꽃이 핀 나무가 많이 있었다.
- ③ 문 밖에 함박눈이 내렸다.
- ④ 찬 바람에 잠이 깬 동생이 울었다.

## 6-2.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산에 오르기를 즐겼다.
- ② 철수가 이야기책을 빨리 읽었다.
- ③ 국밥을 맛있게 먹지 않았다.
- ④ 비가 오자 장미꽃이 떨어졌다.

## 7. 묶음표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15년 지방직)

- ① 나는 3·1 운동(1919) 당시 중학생이었다.
- ② 그녀의 나이(年歲)가 60세일 때 그 일이 터졌다.
- ③ 젊음[희망(希望)의 다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 ④ 국가의 성립 요소 { 국토  
국민  
주권 }

## 7-1. 다음 중 문장 부호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우리 집 강아지가 기출(?)을 했어요.
- ② 이광수[6·25 때 납북]는 소설가이다.
- ③ “어서 바른대로 말해!”
- ④ ○○부대 ○○○명 작전 참가

# 승승국어 기출 문풀 1+2

7-2. 다음 중 문장 부호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통-다리 같은 이상한 말을 쓰지 마라.
- ②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③ 아무튼, 네가 가겠다면 가도록 해라.
- ④ 재적(在籍) ; 호적·학적·병적 등에 적혀 있음.

11.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 잘못된 것은?

(15년 지방직)

- ① 그는 허구헌 날 술만 마신다.
- ② 내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동네 어른들과 잔치라도 벌어야겠구나.
- ③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 내게 서슴지 말고 말해 보아라.
- ④ 담당자의 서투른 일 처리 때문에 창구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11-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 ① 무릎에서 피가 베어 나왔다.
- ② 그녀는 눈을 휘번덕거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 ③ 내가 학원에 가던지 말던지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 ④ 우리의 꿈은 무지개 너머에 있을 지도 모른다.

11-2. 다음 중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잘못된 것은?

- ① 들뜬에 곡식이 서서히 여물어 갈 때, 내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 가기 시작했다.
- ② 햇볕에 그을려 구리 빛 얼굴을 한 농부가 짙은 불에 보리를 그슬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③ 아내가 하얀 이를 들어내고 웃고 있는 동안 나는 창고에 그득히 쌓여있는 쌀가마니를 밖으로 드러내었다.
- ④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고민하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며 나의 성격도 동생과 비스름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10.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는 것은?

(13년 국가직)

- ① 이 책을 좀 읽게[익게].
- ② 이 밭을[바츨] 다 갈아야 돼.
- ③ 협의[혀비]할 사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 ④ 하늘은 맑지만[말찌만] 내 마음은 안 그래요.

10-1.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 것은?

- ① 우리 회사 생산량[생산냥]이 많이 늘었다.
- ② 그녀는 불여우[불러우]같아.
- ③ 의견란[의견난]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 ④ 물엿[물련]으로 맛을 내다

10-2.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 것은?

- ① 그는 기분 나쁘게 이죽이죽[이중니죽]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 ② 눈이 아파 눈에 눈악[누낙]을 넣었다.
- ③ 영화의 사전 걸열[거: 열]이 폐지되었다.
- ④ 책일 읽다[익따]가 잠이 들었다.